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 일 시 : 2021.11.10.(수) 14: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생중계)
- 주 관 :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최 : 서대문구의회 차승연의원,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대문지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 석 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의장, 차승연의원,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 서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서울시장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조직국장,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 서대문지회 부대표, 송파솔루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등 약 15명

□ 진행순서

1. 인사말씀 및 참석자소개
2. 축사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의장, 차승연의원, 최용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
센터협의회 회장, 사회복지과 정종미과장
3. 발제 : 김수경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4. 토론 : 사회자(정동은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1) 최수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부대표
 - 토론자2) 김선이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3) 임권택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 인사말(이진우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장애인도 함께 행복한 행복도시 서대문구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부터 준비한 오늘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람

□ 축사(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서대문 거주 장애인의 존엄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줌.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며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

□ **축사(서대문구의회 박경희의장)**

- 우리구에는 서대문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있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토론을 잘 하셔서 조례 재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음

□ **축사(서대문구의회 차승연의원)**

-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이야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점심을 무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음. 서대문구의 장애인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음

□ **축사(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정종미과장)**

- 발령받고 5개월 동안 일을 하며 거의 장애인관련 사업에 뛰어다님. 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며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람

□ **주요 토론내용**

- **발제 : 행복도시 서대문구, 장애인의 행복은 어디에?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중심으로**

(김수경 사단법인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국장)

- ‘최초’ 라는 이름에 걸맞는 혁신적 탈시설 정책 실현
 - 2021년 8월, 중앙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만큼 서울시에서 혁신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
 - 백화점식, 나열식 지원에서 입체적 구성으로의 지원이 필요함. 장애인의 활동지원, 주거, 노동, 교육, 건강, 경제적 안정을 총체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구성해야 함
- 사회서비스 공공화 실현
 -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화이고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더 탄탄하게 운영해야 함.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시설폐쇄 후 노동자 고용승계 등 공적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를 점차 확대해야 함

- 적극적 행정으로 현장 중심의 존엄한 삶 실현
 - 주어진 행정과 제도에 갇히게 되면 혁신은 불가능하므로 적극적 행정정책 시행이 필요함
- 충분한 예산 마련
 - 충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 계획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토론1 : 발달장애인도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요

(최수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부대표)

-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자기결정권’ 행사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러나 발달장애는 개인마다 장애의 편차가 심하고 중증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 자립을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자립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에도 꼭 필요한 문제임
- 매년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장애인지원정책은 대부분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성인기를 맞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오롯이 부모, 가족의 몫이 됨.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조차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용시간이 평균 100시간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활동보조서비스도 평균 100시간 정도로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므로 활동보조관련 정책이 제고되길 바람.
-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으나 실제 이용기관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가족이 돌보고 있으나 이들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음. 다른 장애유형과는 다르게 발달장애는 자립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기에 자립 훈련센터가 필요함.
-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선배치 후 훈련의 원칙으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함. 앞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이 활발히 책정되고 실현되길 희망함

• **토론2 : 송파구 장애인 자립지원생활지원 사례**

(김선이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송파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지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및 송파 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지원현황 소개
- 현재까지 난항을 보이고 있는 정책 : 송파구 자립 생활주택 도입, 활동지원 구비 신규지원,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 마련,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자치구 공모요청, 의사소통 권리지원사업
- 평소 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설립목적 및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회의원 및 구의원에게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음. 구청은 자립생활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

• **토론3 : 1만2천명 서대문구 장애인중 한 사람입니다.**

(임권택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 서대문구 거주 장애인으로서 건의사항 제안
 - 일상생활이 심하게 어려운 장애인 대상 복지국가책임제 도입으로 1일 24시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약처방 서비스, 재활, 의료서비스 도입건의
 - 똑똑문안서비스 확대 보편화하고 방문확인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대문구가 되길 건의
 -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의 개정 및 확대로 저소득층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 방안 마련

□ **질의응답**

질의1) 2022년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복지과의 지원계획

답변1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 지원계획은 보치아, 영화제 등 올해와 동일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증액될 수는 있음. 서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내년도에 실적을 더욱 쌓고 회원수를 늘려 서울시로부터 비영리 단체증을 확보하여 맞춤형 공공일자리 신청 등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질의2) 서대문구에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도 그 최종결정은 서대문구의회에서 함께 예산승인하고 지원해야 진행이 되는데, 2022년 계획들에 대해 구의회에서 함께 적극 지원해 주길 요청함

답변2 차승연의원) 기본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은 국비, 시비매칭으로 깎기가 어려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홍보물이라도 보내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장애인이 온다면 더 많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임. 송파구처럼 서대문구도 장애인복지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함. 장애인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음

질의3) 지난 여름 서대문구 장애인이 숨진채 발견된 일이 있었음. 가난하고 못먹고 일하고 싶지만 다른 지원이 떨어질까 일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었음. 장애인도 행복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할지 답변 부탁.

답변3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각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관리 또한 더 철저히 하려고 함

□ 토론회 사진

